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오늘 제7대 안수집사 및 제35대 권사 선출

Ⅳ부 예배 후 본당에서 본 교회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하도록

우리 교회는 오늘 Ⅳ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제7대 안수집사 및 제35대 권사를 투표로 선출한다.

이미 발표된 후보자들 가운데 안수집사는 20명, 권사는 50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권자는 한 사람도 기권하는 일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교회 헌법에 의하면, 안수집사나 권사는 무혼한 교인으로 교역자를 도와 공급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직분자들이다. 그러므로 안수집사와 권사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 선출되는 안수집사와 권

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준비되도록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92년도 서리집사 후보 면담 및 교육 실시키로

교회는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중 92년도 남녀 서리집사 후보를 선출하고 그 면담 및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면담은 11일과 12일에 있으며, 13일과 14일에는 베다니홀에서 청지기의 사명과 교회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다. 또 10월 중에는 제자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소정의 교육과 제자훈련을 받은 후보에 한하여 내년도 서리집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서리집사 후보 교육 관계로 성경연구원 수업 중 11일의 마가복음, 12일의 마태복음, 호세아 강의는 휴강한다.

*면담

9월 11일(수) 오후 1시~4시

9월 12일(목) 오후 6시~9시

*교육

9월 13일(금) 저녁 7시~9시

9월 14일(토) 오후 4시~6시

*제자훈련

10월 2일~3일

10월 17일~18일

10월 24일~25일

초등6부

어린이제자훈련 위한 특강

초등6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정기봉 목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에 걸쳐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제자훈련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선교단체인 파이디온선교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이 훈련은 안드레운동 이후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전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짱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온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육신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장애인 복음화 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여온 장애인을 수용할 만한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호텔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손수 도우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민박 가정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도 생각해볼 것이지요. 자녀 교육에도 많은 특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불평이 많은 자녀들과 이삼일만 함께 있게 하면 특효약을 먹인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저들로 인해 받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던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와 민박 봉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9. 8

이 중 윤 목사

'91 장애인 복음화 대회 민박 봉사자 찾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91장애인 복음화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는 10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한국밀알선교단(이사장 이종윤 위임목사) 주최로 열리게 된다. 더욱이 그 주간 주말(11일과 12일)에는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가 계획되어 있다. 대회 본부측은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찾아올 장애인들을 위한 민박봉사자와 차량봉사자를 찾고 있다. 장애인을 민박시킬 경우 자녀들의 교육상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귀한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일에 봉사를 희망하는 가정은 교회 사무국에 마련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고등부 고3 위한 기도 결연 예배 드려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송태근 목사)는 오늘 오전 9시에 고3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위한 기도 결연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는 취업과 대학 입시(12월 17일)를 앞둔 고3학생들을 위하여 교사와 1, 2, 3학년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교회 담임 교역자 파송예배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전국의 무교회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오늘 저녁 7시에 그 담당 교역자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서는 서송원충현교회로 민춘화 전도사를, 중산충현교회로 김영일 목사를, 대신충현교회로 홍익표 전도사를, 고양충현교회로 김후용 전도사를 파송한다.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

로)는 경북 봉화군에 지교회를 설립코자 했으나, 설립 여건이 더욱 양호한 경기도 여주군에 대신 충현교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이로써 우리 교회 지교회는 모두 9개로 늘어났는데, 지교회를 중심으로 무교회 지역이 복음화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교 회	담당교역자	주 소
금현교회	장병기 목사	경기도 여주군 북재면 외룡리 298-2
서현교회	배정양 강도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1리
재현교회	한용관 강도사	경기도 연천군 고문2리
부현교회	정희준 전도사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2번 90-1
신현교회	양경운 목사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 신월리
서송원충현교회	민춘화 전도사	충청북도 영동 황간면 서송원
중산충현교회	김영일 목사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중산리
고양충현교회	김후용 전도사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교감리
대신충현교회	홍익표 전도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사랑의 집 착공예배 드려

충현의 전교인이 그 동안 기도해오던 사랑의 집 착공예배가 지난 9월 2일 오후 6시 30분 이종윤 위임목사, 교역자, 장로들과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드려졌다.

지난 7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랑의 집은 약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완공될 예정이다.



지혜는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악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1. 악한 지혜의 발생 원인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약3:14)

인간 문제의 모든 기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지혜 또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해진 영혼 때문에 악한 지혜가 우리 주변에 살아움직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지혜를 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갈5:20). 즉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육신의 정욕으로 맺어지는 무서운 열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독한 시기가 악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됩니다.

둘째, 다툼이 악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툼이란 야망이나 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케 하여 자기의 평안과 안일을 구하는 육신적인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악한 지혜를 피하게 합니다.

제5일

악한 지혜

(약3:14~16)

14절 하반절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교정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 속에 그대로 잠재해 있는 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악한 지혜를 피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야망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하는 것이 악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거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악한 지혜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악한 지혜를 동기부터 뽑아내려면 마음에 있는 부패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케 하고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2. 악한 지혜의 근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이지요”(약3:15)

악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부터 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세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지혜를 떠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악한 지혜가 정욕적이라 했는데 이는 비영적이며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본능의 충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한 지혜가 아니고 악한 지혜를 가지면 마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은 성결치 못하다는 것이며, 마음에 미움과 악심과 반역심이 생기는 것,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자기 존재를 자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지혜의 근원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3. 악한 지혜로 인한 손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3:16)

첫째, 악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요란이 옵니다. 요란이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1장 8절에 의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악한 지혜는 모든 악한 일을 가져옵니다. 죄란 암세포와 같아서 한번 죄를 지으면 죄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차고넘칠 때에 악한 지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악한 지혜를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전2000 운동
새벽기도회 설교 ③

이 중 윤 목사

야고보서 강해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선한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면 지혜에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한 지혜(약3:15)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약3:17)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열왕4:29; 잠2:6,26).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편견된 일과 거짓된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규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약3:17)

어떤 것이 선한 지혜이고 악한 지혜인

제6일

위로부터 난 지혜

(약3:17)

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결을 보면 압니다. 성결이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자신을 깨끗케 합니다(요13:3). 자기를 향하여 촛점을 맞춘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마5:8).

3.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17절을 보면 성결한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진실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특성은 지혜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을 사랑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는 관용합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쉽게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양심이나 용기가 없는 것을 가르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마음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함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긍휼이란 용

서와 구제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5, 16)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극도로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누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자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섯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편벽(偏僻)해야 합니다. 편벽이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처럼 성결한 마음으로 위와 같은 일곱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직업

이 기 성 집사(제10교구)

새벽 2, 3시경에 집을 나서면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른 시간에 거리를 쓸고 집집이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는 미화원 아저씨들이다.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마저 든다. 요사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한다는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에 그분들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비춰지기까지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해서 긍지가 부족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직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감당케 하신다. 자칫 내 노력의 대가로 물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용주이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남에게 신세를 진다든지 남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심의 본을 보여주셨다. 혹 집세나 또는 은행이자나 받아서 특별한 직업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지루하며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삶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시므로 우리는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직업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나? 직업을 통해 얼마나 남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나?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분이시기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성실했는가를 측정하시는 분이시다.

전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

인인 우리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의 도가니로 비춰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이원화시키고 전생활 영역 가운데서 본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 선교와 직장의 복음화는 전임 사역자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각 직장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은 공무원이었고, 아브라함과 욥은 목축업자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만드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 선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이들을 파송하였으며 또한 계속 훈련중에 있다. 공산권이나 회교권에서는 전임 사역자들의 출구는 좁아지고 있으나 직업을 통한 평신도 선교사의 문은 확대되고 있다.

의외로 직장에서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초신자들이 불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기독교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신자다운 방법으로 일해나갈 때 가장 천한 일일지라도 가치있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상사나 동료, 아랫 사람까지도 공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또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선수범하여 자신의 업무를 감당할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직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될 것이다.

요한전도회 협의회 14일에 친선체육대회 갖기로

요한전도회 협의회(협의회장 박찬섭 집사)는 오는 9월 14일(토) 오후 3시 뱃바게광장에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축구경기, 식사, 예배순으로 진

행 될 이 체육대회는 회원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계획되었는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실업인선교회 내일 특강 개최

실업인선교회(회장 남선우 장로)는 9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갈릴리움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김동길 박사를 모시고 "21세기

를 향한 한국 경제와 기독교인의 재물관"을 주제로 진행될 이 특강에 충현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세계 향한 구체적 비전 갖게 돼

이 수 경 학생(대학부)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를 통하여 일본 기독교청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묘한, 그리고 단단한 마음의 벽들이 느껴졌다. 입으로는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친절하고도 아름다운 웃음을 주고 받았지만 여전히 답답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영적으로는 빈약한 그들에게 신앙적 우월감을 느꼈다. 말로는 너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말을 하고 일본 청년들은 일본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해야 했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인 노봉린 목사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교 현황을 듣고 세계에 대한 동정심이 느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비는 어느 일본 목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불행했던 과거 역사로 인해 일본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지울 수 없는 내가 한심스러웠다. 그렇지만 하루가 가고 이들이 지나면서 일본 청년들과 어렵지만 대화가 통해가자 그들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져갔다.

그러던 주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명의 젊은 일본 청년들과 대학부 학생들이 만날 시간이 있었다. 그들과 밤이 되도록 찬양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비전을 나누었다. 그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을 때 의외로 눈물을 흘리는 자매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 참가소감문 ②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었을 때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으로 일본을 위해, 1억 3천만의 일본인을 위해, 70만 재일 동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듯, 나도 일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세계를 향한 구체적 비전과 국제적 감각을 느낄 수 있어 이번 대회는 내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기로

정 관 호 성도(청년1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높고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선교의 참 뜻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세계 2400여 족속 중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듣지 못한 족속이 아직도 1200여 족속이나 된다는 노봉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의 절대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점차 선교사를 배척하고 기독교에 대한 편박도 더욱 심하여서 새로운 선교 방법을 개발하여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다. 선교의 기능성과 낙관적인 측면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며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었고 선교에 대한 방법과 계획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이제는 전통적인 선교사로서만이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기도하였다.

처음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신앙 성장이나 영적 훈련을 위해 서였다. 그러나 제1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

내가 그 동안 생각해온 전도나 복음화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즉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 복음화를 깨닫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를 알게 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 선교지 소식

본격적인 의료 전도에 들어간 파키스탄 의료선교팀



주 안에서 강건하신지요?
그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카라치로 장소를 옮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순까지 모두 이사를 마친 뒤 이 지역의 의료 상황과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약 3주간 유사 진료 기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8월 초에 사역지인 오랑기타운의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건물과 주변 지역들을 살펴보고, 8월 6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내부공사는 약 2주 후에 끝나기 때문에 병원 바로 건너편의 학교에서 큰 교실을 하나 빌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차츰 홍보가 되면서 학부모와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이 학교의 학생수는 2,000여명이나 되어 홍보 과급효

과가 매우 큼니다). 요즘은 하루에 50 내지 80여명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부지도 매우 넓고 건물의 골격이 다 완성이 되어 내장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크고 작은 방들이 30개나 되어 전체 완공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팀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전면의 방 몇 개를 먼저 완전한 뒤에 바로 옮기려고 합니다.

카라치에서 약 20km 떨어진 오랑기타운은 주로 빈민들이 몰려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고 작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몰려와 살기도 했습니다. 이곳 지역은 작년까지만해도 상습 분쟁지역이었고 총기 사건도 자주 일어나던 강

도 만난 이웃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의 선한 사마리아병원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취업 허가(무보수 취업)를 받을 수 있도록
- 2) 병원이 속해 있는 MEVE TRUST(Medical, Educational, Vocational and Endowment) 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 3) 병원의 장기 계획이 잘 세워져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4) 선교사들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
- 5) 진료와 전도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활의 바다

김 준 성도(청년1부)

생명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동트는 아침 푸른 바다에
나는 가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지난밤엔
흔들리는 생명나무 잎새로
슬픔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절한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내 마음은 적막한 들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내 주님이 계신 저 푸른 바다 위에 머무르고...

생명나무가 무성한 호숫가에서
하프를 켜는 소녀여
내 사랑 아픔의 오션지는
붉은 잉크로 불타오르는데...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저 부활의 푸른 바다 해 뜨는 곳으로 가자.

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랑의 바다
믿음의 하늘을
물새처럼 유유히 날게 하소서.

백원옥 학생 9일 시집 출판 감사 예배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정신 미령 선교사와 성도들이 참석한, 신체적 장애를 딛고 세인들 가운데 시집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게 인간 승리의 참 모습을 보린다.
여준 백원옥 학생(에바다부)이 9월 9일 저녁 7시에 베다니홀에서 시집을 엮은 위임목사, 유관지 목사(극동방송), 정형석 목사(밀알선교단), 손종률 학장(강남대학), 전

살롬경로대학 12일에 개강

살롬경로대학(학장 이종윤 위임목사)의 91년도 제2학기가 오는 9월 12일(목) 오전 11시에 개강한다.
이번 학기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10주 동안 진행되는 데, 믿지 않는 노인들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살롬경로대학에서 노인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할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도 바라고 있다.

2	9.19	윤용규 목사	식사	노인과 신앙	신종철 집사	특활
	9.26	자 연 관 찰(영능)				
학	10.10	김창수 목사	식사	노인과 건강	김전열 교수	특활
	10.17	김찬곤 목사	식사	성경공부	송태근 목사	특활
기	10.24	자 연 관 찰(단양팔경)				
	10.31	이종윤 목사	식사	신 앙 간 중	고은아 집사	특활
기	11. 7		식사	노인의 재산 관리	이세일 목사	특활
	11.14	김양홍 목사	식사	신 앙 간 중		특활
	11.21	수 료 식				

강양의 소리

◎... 오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 투표 예정. 제비는 사람이 뵈으나 ◎...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세미나 개강되다. 재충전의 계기되어, 양무리의 발

◎... 사랑의 집 착공 예배드 을 씻기시옵소서.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조직위원회 구성

구제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는 10월 11일과 12일에 개최될 제4차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복지마을 설립 기금과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바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고 있다.

*바자회 조직 위원회

대 회 장: 이종윤 위임목사
고 문: 김창인 원로목사
운영위원장: 노광현 장로

운영 위원: 구제위원회 위원

실 행 위 원: 각 교구 교구장
지도교역자

지 도: 김창수 목사

*진행부

부장: 노광현

위원: 박상준

*홍보부

부장: 박승준

위원: 이승철, 박은경, 허명호

*재정부

부장: 윤광일

위원: 김상순, 김준지, 정경자,
김순희

*시설부

부장: 김경철

위원: 윤상언, 김 신, 유성남,
이용호, 김용래

*봉사부

부장: 박치민

위원: 김영길, 차기풍, 박호용,
윤병조

*의료부

부장: 이종석

위원: 손 철

*특활부

부장: 강모용, 조인제

위원: 에바다부(부감),
사랑부(부감), 밀알선교회

91년도 하반기 장학금 오늘 전달

91년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인 장학 사업으로 전국 일꾼 양성에 앞장서 왔는데, 이번에도 신학원생 6명, 대학원생 2명, 일반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13명과 강남구청에서 추천받은 학생, 선교사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나와줄 것을 바라고 있다.

*소석장학생

황옥진, 송준엽, 이재호, 박성곤, 이현주, 김현정, 정윤성, 최경애, 송민선, 이정은, 이미리, 조성희, 안광영, 김정호, 오정성

*충현장학생

최연희, 김경희, 박충열, 정재용, 김성욱, 홍경호, 장인순, 이호복, 전정규, 정문재, 세일우

*위탁장학생

김미성, 박상현, 이상권, 백원옥, 장수진, 김영민, 임진영, 송

은석, 마상찬, 임영호, 유국남

*충현 사랑의 장학생

손정순, 김상태, 이재우, 최성규, 이승호, 정성진, 김기홍, 김원경, 조상욱, 이형진

*신학원 장학생

윤석산, 민춘화, 이동혁, 유재덕, 김인용, 이준우

*해외장학생

김승현

*선교사 자녀 장학생

이석신, 이석현